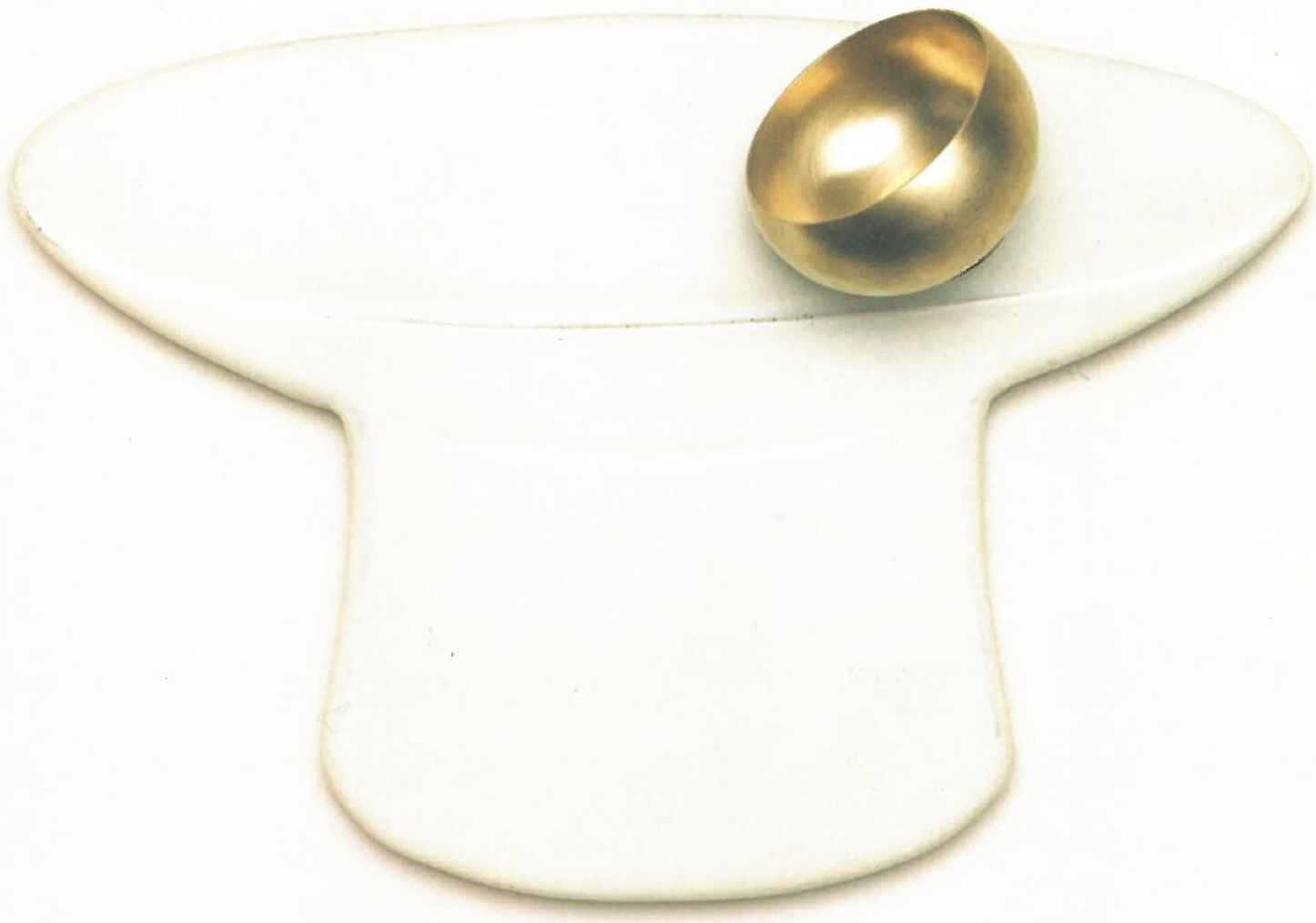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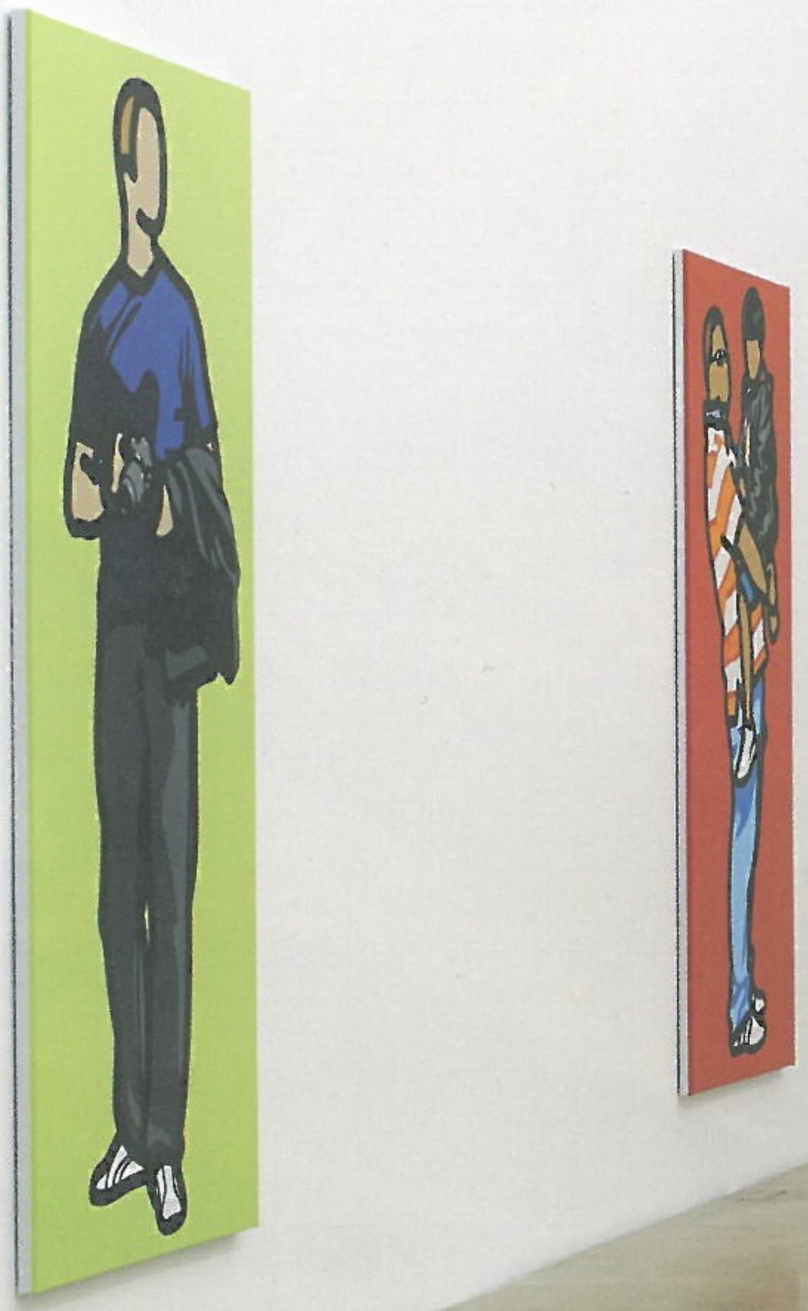
Sulwhasoo

Vol.61 March/April 2014





줄리안 오피가 그린

도시인의 강렬한 초상

'핸드백을 들고 쇼핑에 심취한 여자,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신사, 성큼성큼 걸어가는 힙합 소년.'
이들은 모두 줄리안 오피의 작품 속 주인공이다. 거리를 걸어가는 인물들에게서 느껴지는 아름다움과 에너지를 강렬한 색채로 담아내는 줄리안 오피의 작품에는 가볍지 않은 위트와 우리의 삶이 숨겨져 있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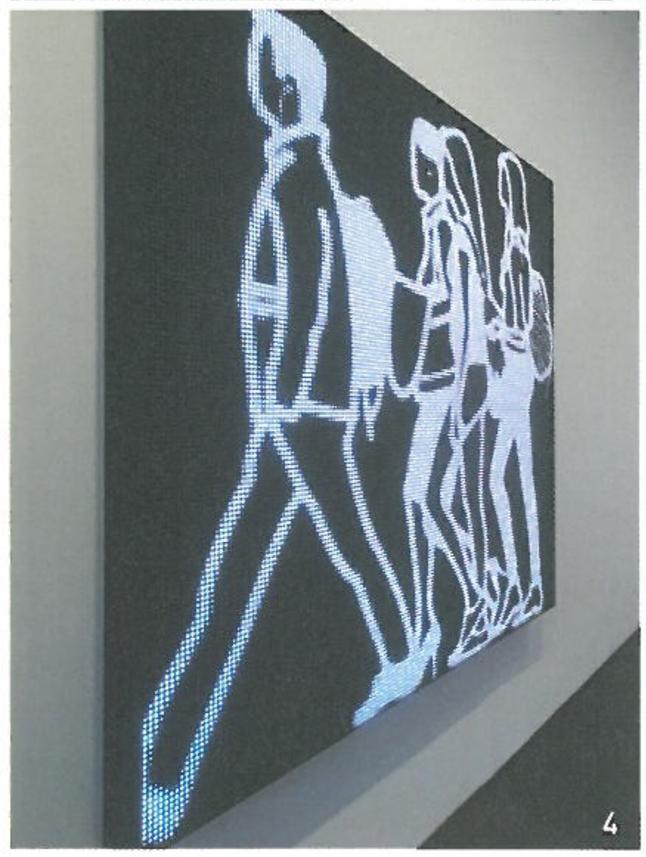
우리가 흔히 서구미술이라 말할 때는 그리스로부터 시작해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 플랑드르(네덜란드, 벨기에)를 주로 거론한다. 바로 지금 언급한 국가들이 서구미술의 대표적인 중심지였다. 그것을 중심으로 서양미술의 특성과 여러 징후들이 등장하고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들이 양산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미술의 다양한 의견, 담론들이 줄을 이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쳐 미술의 진원지는 뉴욕으로 이주했다. 최근에는 뉴욕과 함께 베를린과 바젤, 런던 등이 미술의 중심지로 거론된다.

바젤은 최고의 미술시장으로서 각광받는 곳이다. 반면 영국은 오랫동안 서구미술에서는 변방에 위치해 있던 나라였다. 유럽 대륙으로부터 떨어진 이 섬나라는 대륙의 미술문화 역시 뒤늦게 수용하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컨스터블이란 낭만주의 대표적 작가의 등장과 함께 주목받으면서 이후 터너와 같은 인상주의의 전조를 여는 작가도 나왔다. 20세기 현대미술에서 최고의 작가 특히 구상미술 분야에서 영국작가들의 두드러진 활약이 눈에 띈다. 프란시스 베이컨, 루시앙 프로이트, 그리고 데이빗 호크니 등이 그들이다. 그와 함께 헨리 무어, 안소니 카로, 안소니 곰리 등 탁월한 조각가들도 줄을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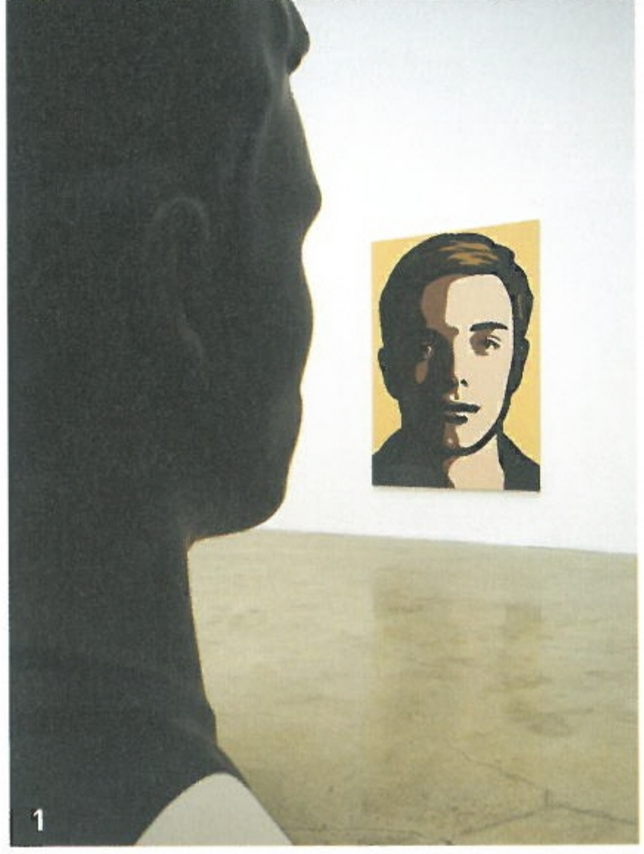
1960년대 팝아트의 진원지가 영국이고 그 대표 작가들이 영국에서 탄생했다. 유사한 시기에 비틀즈도 태동되었다. 현존하는 최고의 작가로 거론되는 데미안 허스트도 역시 영국작가다. 오늘날 영국미술은 현대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현재 한국에서 미술공부를 하기 위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바로 영국의 런던이다. 오늘날 영국의 런던은 미국의 뉴욕, 독일의 베를린과 함께 3대 장소가 되었다. 이곳에서 이른바 현대미술의 새로운 경향과 담론, 중요한 작가와 작품이 생산되고 있다.

현존하는 영국의 대표 작가인 줄리안 오피는 런던 출신의 작가다. 지금 그의 근작이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다. 오피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화단에 자주 소개되어 왔다. 여러 아트페어에 초대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인전도 가진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국미술은 무엇보다도 구상의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팝적인 화풍이 강세다. 이른바 섬나라 미술의 주된 경향이 그런 것 같다.

이웃 일본 현대미술도 역시 그러한 측면이 강하다. 만화와 유사하고 쉽고 설득력 있는 일러스트적이며 팝아트에 유사한 화풍이 일본 현대미술이다. 영국 현대미술도 그러한데 그 대표 작가가 오피다. 물론 그 유명한 호크니도 존재하지만 그의 그림은 구상화풍에 강하게 견인되어 있다. 반면 오피는 구상의 형태를 지니면서도 굵고 단순한 윤곽선 아래 구획된 형상과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명시성 높은 인공의 색채, 일상에서 취한 보편적인 소재로 이루어진 그림을 선보인다. 마치 굵은 매직펜으로 쓱쓱 그려나간 만화 이미지를 닮았고, 포스터 칼라로 선명하게 발라진 포스터나 광고 이미지를 닮았다. 따라서 오피의 그림은 기존의 화



1 거리를 걷는 혹은 잠시 멈춰 서 있는 군중에게서 모티브를 얻어 강렬한 색채 팔레트로 작품을 완성하는 줄리안 오피. **2** 왼쪽 작품 〈Walking in Sinsa-dong 1〉(Julian Opie, 2012), 오른쪽 작품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Julian Opie, 2014). **3** 작가 줄리안 오피가 그린 자화상 〈Julian Opie, Julian〉(Julian Opie, 2012). **4** 이번 전시에서는 작품 속 인물들이 실제로 걸어 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LED 패널을 함께 선보였다.



1 거대한 사람의 머리를 형상화한 두 개의 레진 모형이 전시되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 〈Man with a bread and dark glasses holding a water bottle〉(Julian Opie, 2013). **3** 새롭게 선보이는 서울 보행자 연작인 〈Walking in Sadang-dong 3〉(Julian Opie, 2014). **4, 5** 런던의 보행자들을 담은 LED 애니메이션. **6** 레진 모형과 그것을 회화로 옮긴 〈Lily, eyes straight, head right, slight smile〉(Julian Opie,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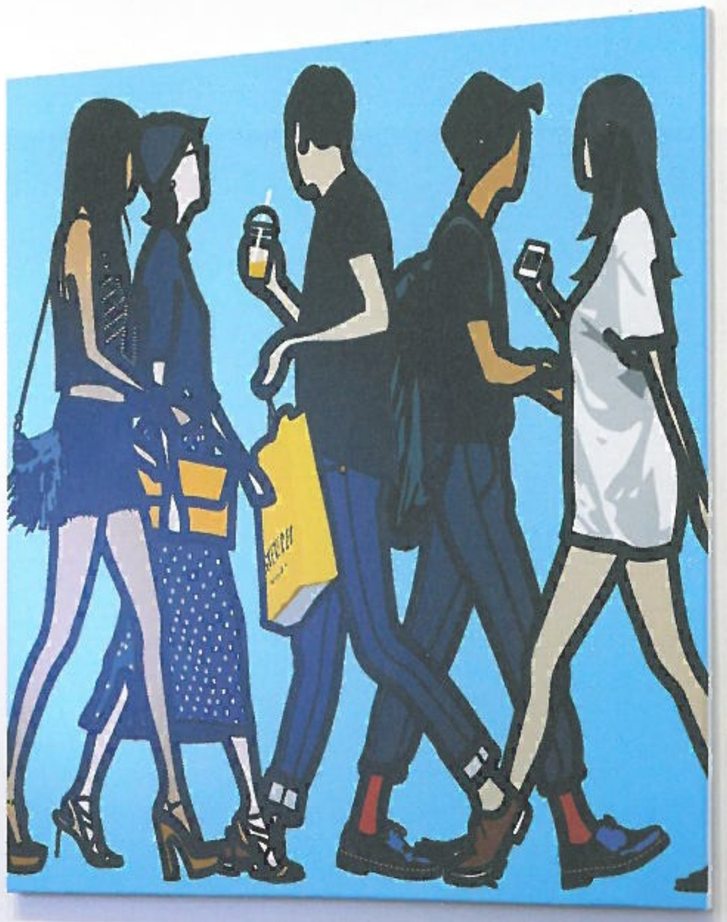
풍과는 무척 다른 감성으로 접근하게 한다. 그것은 쉽게 알아보고 읽을 수 있는 광고 이미지와 같지만 전통적인 캔버스에 올려진 그림이다. 그러나 한 개인의 주관적인 특질을 보여주는 붓질은 부재하고 마치 인쇄된 듯한 비닐 페인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어 있다. 이른바 한 화가의 주관성이나 정념적인 특성을 엿보게 하는 표면적인 붓질이나 제스처가 깔끔히 증발된 상태에서 기계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느낌을 강하게 풍긴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 이루어진 그림에 가깝다. 따라서 우리들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는 무수한 인공의 이미지와 닮았다. 바로 그 점이 대중들이 그의 그림에 친밀감을 느끼는 이유다. 쉽고 밝고 재미있는 이미지, 장식적이고 귀엽고 매력적이다. 더없이 매끄럽게 도포된 비닐 코팅과도 같은 표면은 누구나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하다. 그것은 컴퓨터 상에서 출력된 이미지로 현대사회의 일상에서 수시로 접하는 모든 광고, 출판, 상징적인 인공의 이미지 그대로다. 바로 그러한 경향을 이른바 '팝아트'라고 부른다. 그러니 오피는 1960년대 이후 팝아트의 적자인 셈이다. 그렇다면 60년대 팝아트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영국미술이야말로 그 팝아트의 계승이고 번안인 셈이다. 영국은 그만큼 팝아트의 영향이 큰 나라다.

줄리안 오피는 1958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골드스미스를 졸업하고 작가로 활동하면서 현재 영국의 대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소재를 취한다. 직접 촬영한 인물과 장소들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드로잉들로 번안되며 이후 디지털 미디어의 어취들로 이루어진 결과물로 도출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또 디지털화 및 인쇄 제작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기술이 그의 그림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피는 고도로 단순화된 인물 형상을 보여준다. 마치 만화와 같은 그 인물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도시인들이다. 자신의 개인적 삶에서 친숙한 주변인들을 캐릭터화해 차용하는데 그 인물들이 지닌 감정적인 힘을 강렬하게 포착해서 단순하게 응고시킨다. 모든 사람들은 이미 그 자체로 매력적이라는 것이다. 그의 작업은 전적으로 선과 색채로 이루어진다. 그러니 회화는 어찌됐든 결국 선이고 색에 의해 특정 형상을 감동적으로 포착해내는 일임을, 그는 작품으로 강변한다. 또 주변 사람들의 얼굴, 옷차림, 행동 등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를 그림으로 또는 영상으로 옮긴다. 런던의 보행자들을 보여주는 그의 LED애니메이션 회화 연작은 단순하고 간결하면서 힘 있게 도시인의 속성을 보여주는 한편, 더없이 우아하고 재미난 영상의 한 사례를 안긴다.

그의 화려하고 정교하며 아름다운 일상적 인물들의 이미지는 회화가 지닌 매력을 유감없이 발산하는 동시에 도시 대중의 집단적인 성향과 획일적인 속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바로 그러한 힘이 다름 아닌 진정한 팝아트의 매력인 것이다. S

에디터 정순영 **글** 박영택(경기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윤은숙 **도움 주신 곳** 국제 갤러리(02-735-8449)



3

4

5

6